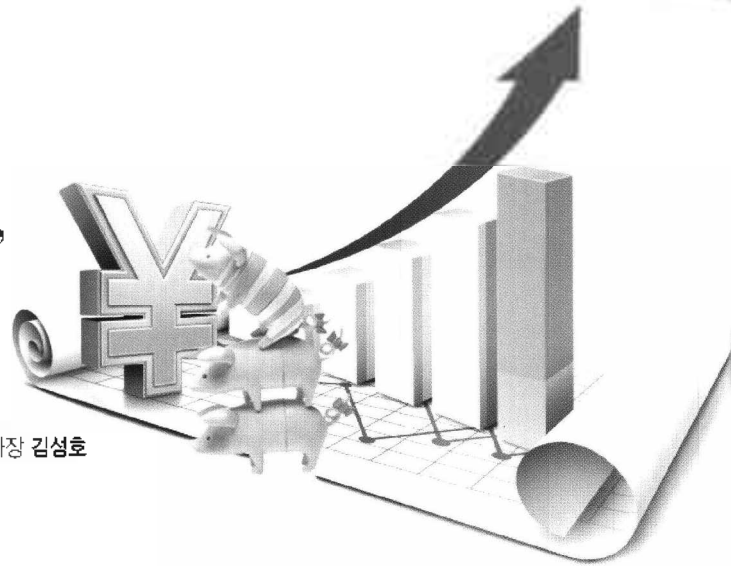


# 일본 돈육시장의 54% 자급률, 남의 얘기가 아니다



평가사업본부 창의사업팀 차장 김성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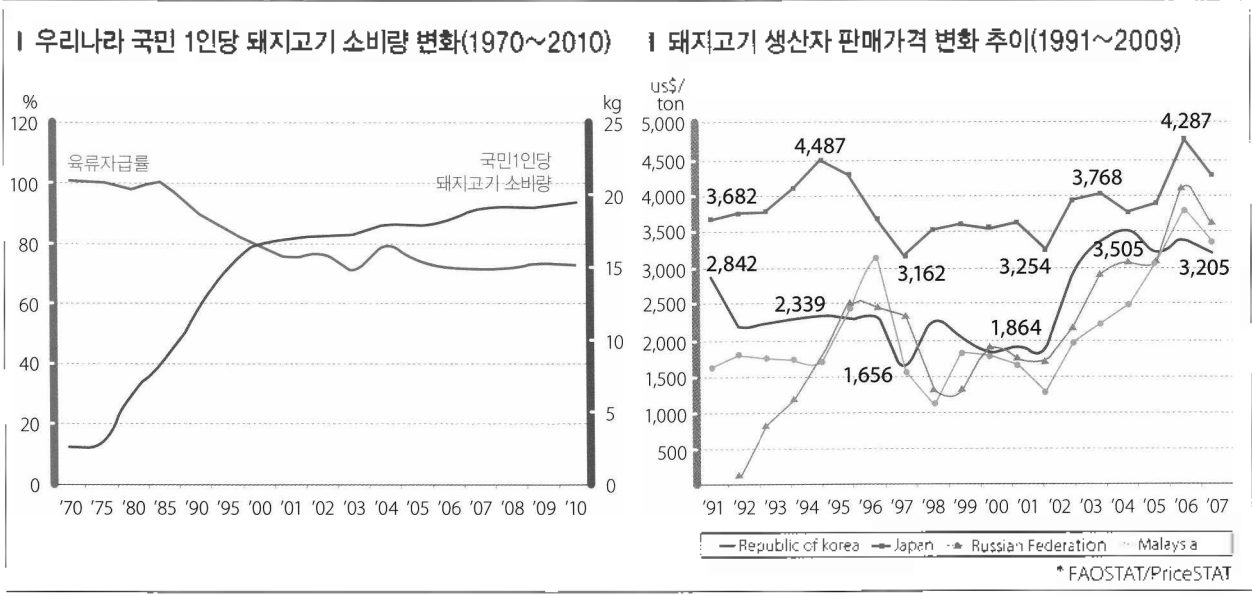
재작년부터 우리는 역사 이래 유례없는 흉역을 앓고 있다. AI, 구제역, 광우병, 신종플루 등 질병의 공포에 우리가 먹을 돼지고기마저 1/3을 땅 속에 묻은 바 있다. 더구나, 재작년 말 구제역 영향으로 국내 돼지고기 가격이 kg당 6,000원 이상의 높은 가격을 기록하면서 정부가 할당관세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공급량을 통해 가격안정 효과를 꾀했으나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2012년 3월 14일, 한·미 FTA가 발효되었다. 한·EU FTA('11.7) 발효에 이어 시장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했다. 자국의 자원만으로 생존할 수 없기에 시장 개방을 통한 수급은 어쩌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로인한 축산업의 변화 또한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본문에서는 현 상황에서 앞으로 변화가능한 우리나라 축산업의 미래를 생각해보고 그 대비를 위해 서둘러야 할을 공감해 보고자 한다.

급변하는 시장상황에서 '불안감'이 나만의 기우였으면 좋겠다

“을 돼지 도축두수, FMD 이전 수준 근접 전망 (한국농어민신문, 3.12일자)”이란 기사를 읽으면서 마냥 좋아하기 보다는 근심 속에 걱정만 느끼는 것은 나만의 일일까?

국내산 돼지고기 공급량이 일정 수준으로 올라오에 따라 수급 안정과 함께 널뛰는 가격의 하향 안정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되었지만 수입개방화에 따른 값싸고 규격화된 미국산 돼지고기 등이 몰려들텐데 회복된 저속 가격 4,000원대조차 불안해 보이기만 하는 것은 왜 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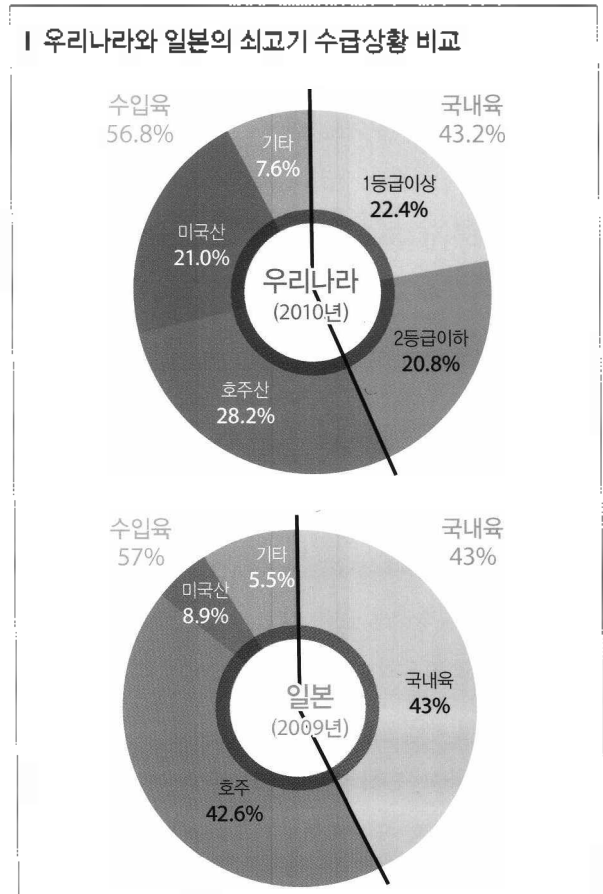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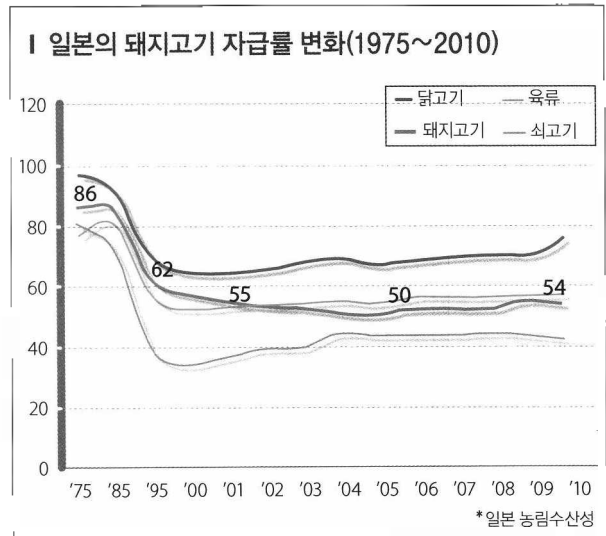
우선, 주요국 중에서도 일본을 제외하고 가장 두드러진 우리나라 돼지고기 생산자 판매가격 동향을 살펴보고 고민해보자. 일본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주요국 대부분이 고른 가격대를 형성했던 쇠고기 생산자 판매가격 동향(세계식품과 농수산 2월호, 62쪽)과는 달리, 돼지고기는 대체로 수급 불안에 따른 가격이 요동치고 국가간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음을 엿볼 수 있다.

우리나라 돼지고기 생산자 판매가격은 2009년 3,205달러/톤으로 1991년 2,842달러/톤과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20년 동안 가격이 급등락한 구불구불한 길을 걸어왔다. 물론, 현재진행형이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 ...

첫째, 우리나라 국민은 돼지고기를 좋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좋아할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우리나라 쇠고기 수급상황은 자급률 43%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일본 또한 우리나라와 유사한 시장변화를 거쳐 자급률 43%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수입육이 국내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 쇠고기 시장을 계속 밀고 들어와 43%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형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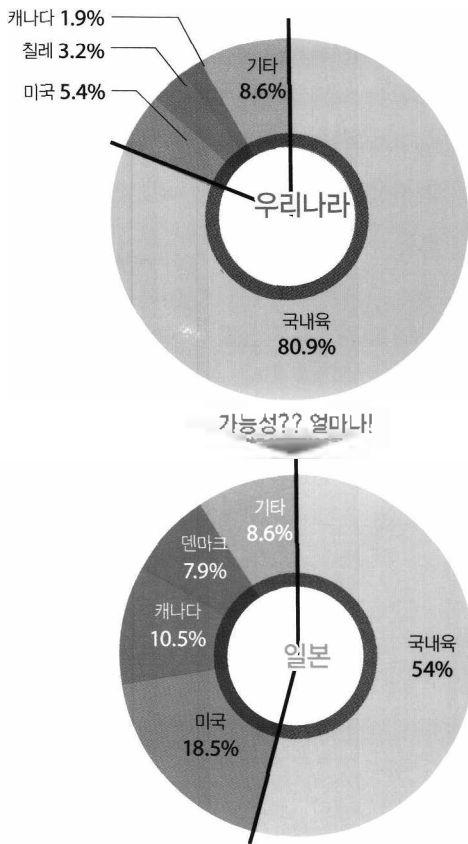
셋째, 일본의 돼지고기 수급상황은 시장개방화 등으로 인해 자급률 50%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캐나다, 덴마크의 시장점유 확대에 따라 국내산 시장이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진행될까?

넷째, 미국 내 돼지고기 생산량은 2006년 이후 자국내 소비량보다 높아 해외진출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일본의 돈육시장에서 미국산 돼지고기가 수입육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 18.5%의 시장점유를 보이고 있음을 볼 때 한·미 FTA 발효 등에 따라 우리나라의 현 80.9%의 돼지고기 자급률 상황이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사실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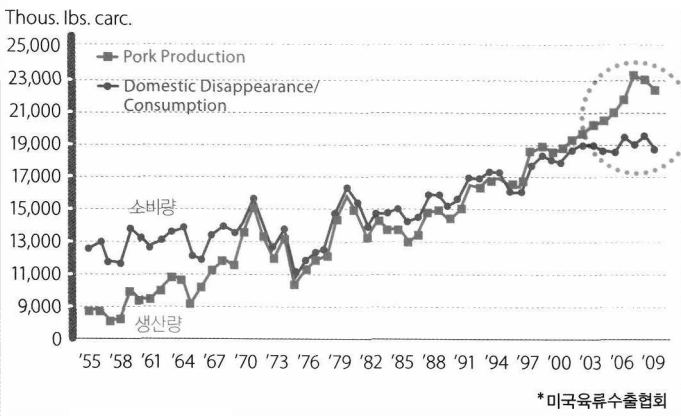
일본에서는 지난 세월 일본인들의 로스와 등심에 대한

I 우리나라와 일본의 돼지고기 수급상황(2010)



가능성?? 얼마나!

I 미국 돼지고기 생산량 변화(1955~2009)



기호가 증가하여 왔고, 일본에서 사육한 돼지만으로는 로스와 등심의 수요를 충족할 수가 없으니 수입을 늘일 수 밖에 없었으며, 로스와 등심만 팔아서의 타산이 맞지 않는데다가 값싼 수입고기가 일본 내 영세 양돈업자의 경영을 압박하므로 일본 내 사육량은 점점 더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본의 돼지고기 유통은 지육으로부터 부분육으로 이행해왔으며, 수입 돼지고기도 부위별로 수입되고 있다.

일식육 유통센터의 취급량이 늘고 있으며 일본 내 햄·소세지 대기업 7사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그 역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대응가능한 검토방향은 ...

첫째, 돼지고기 50% 자급률 수준을 염두에 두고 시장변화 시뮬레이션을 구동해 보는 일이다. 시나리오별 대응대책을 세워야 한다.

둘째, 자급률 변화를 상시 모니터링 하면서 적정 공급량(생산두수)으로 관리하는 일이다. 축산업허가제 시행으로 교두보는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무엇보다도 다가올 미래에 대응가능한 '한국형 돼지고기의 품질'에 대한 개념 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소비자에게 '한돈'하면 수입육과 비교하면서도 다소 비싸지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품질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친환경 또는 유기농, 동물복지 인증 등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동물복지 선진국인 EU조차 유기농 시장이 자국 내 2%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대다수의 국내산 돼지고기가 일정 수준이상 품질고급화에 올라서야 하지 않을까.

넷째, 일본의 경우처럼 우리나라 또한 2차육가공산업은 대기업 점유비중이 크므로 저지방부위 소비 촉진을 유도하여 부위별 수급의 불안요인을 덜어내고, 지육 중심에서 부분육 유통으로 전환하는 등 유통구조 합리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특정기업**